

예상 못한 웅덩이들

Karen Price 카렌 프라이스

2015 년 10 월 18 일 평신도 주일

“어떻게야 천당가지?” 물었더니, 한 아이가 대답하기를, “죽어야지요.”

요셉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굴곡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왕궁생활도 있지만 웅덩이이 빠진 생활, 감옥생활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요셉과 비슷합니다.

31 주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캠페인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삶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입한 책의 저자의 한사람인 랜디 후레지는, 하나님의 높은 시각 그리고 우리 인간 낮은 시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 하지 못하는 환경, 상황, 전개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17 살 청소년 요셉. 12 명의 형제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귀움을 독차지 했지요. 그래서 형제들이 시기를 했지요.

꿈에서, 그 형제들과 아버지가 자기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지요. 형제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하고 그래서 기회를 잡아 요셉을 붙잡아 웅덩이 넣습니다. 루우벤이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고 해서 목숨을 건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습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생생하게 웅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을 묘사하였습니다. 요셉은 웅덩이 빠지는 날, 아침에 일어나, 오늘 내가 웅덩이 빠질 것이니까 준비하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런 힘든 상황이 되며는 우리는 침울해지고, 공포심에 눌리고 화가 나고 분개합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형제들은 집에가서 요셉이 맹수에 잡아 먹힘을 당한 것 같다고 보고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애굽 장군의 집에서 정착하고 온 집안을 치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 이야기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다.” 라고 알려줍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시기로, 감옥에 갑니다. 감옥은 또 다른 웅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요셉은 꿈을 해석 잘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년 후에, 왕궁으로 불러 들어가서, 아무도 해석못하는 왕의 꿈, 두 개를 해석하게 됩니다. 7 년 흉년. 7 년 풍년. 그 후 요셉은 제 이인자가 되어, 다가 올 흉년을 대비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한편, 야곱은 자녀들을 애굽을 보내어, 곡식을 매수하게 합니다. 39 살이 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시기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많은 생명들을 살리시려고.” 야곱과도 재회합니다.

몇주전에 교황이 뉴욕에 방문했을 때, 텔레비전에서 스티븐 맥도날드 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티븐은 1986 년 7 월 12 일 센츨럴 공원에서 총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이었지요. 15 살 짜리 아이에게 총격을 받았는데 전신 마비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는 용서를 했습니다. “8 개월 결혼 생활에 아내 패티는 23 살이었고 아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총격을 받고 6 개월 후에 아기가 태어났고, 카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총격을 한 소년을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죄책감에서 풀어나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자유로와져서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왜 용서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스티븐은, “총격을 받은 것 보다 더 비참한 것은 맘 가운데 복수심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해롭지요. 신체적으로 받은 상처는 영원하지만 영적으로 상처받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티븐은 이 곳 저 곳에 초청을 받아, 용서하는 삶에 관하여 강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요셉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행을 통해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여 주심을 밝히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고,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든 상황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용서하는 자리에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롬 8:28

한 청교도인의 기도를 읽겠습니다. 침묵가운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꿈의 계곡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 당신의 높은 뜻을 보게되었습니다.

모순을 통해 배우게 하시옵소서: 내려가면 올라가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상처가 있으면 나음이 있고, 참회의 영이 기뻐하며, 회개의 영이 승리하며,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가진 것이고, 십자가를 짊어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계곡이 바로 꿈자리임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 대낮에 별들은 깊은 아주 깊은 우물에서 볼수 있습니다. 깊을 수록 밝게 보게 됩니다. 어둠 속에 빛을, 죽음 속에 생명을, 애통함 속에 기쁨을, 죄가운데서 은혜를, 가난한 곳에 풍요함을, 깊은 계곡에서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